

조기위암의 일차치료(First-line Therapy)는 무엇인가?

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, ¹임상병리학교실

조주영, 김연수, 정운호, 정인섭, 홍수진, 유창범, 김진오,
이준성, 이문성, 심찬섭, 김부성, 진소영¹

(배경 및 목적) 조기위암의 치료는 수술을 통한 근치적 절제가 원칙이나 최근에는 내시경적 점막 절제술 및 내시경절개점막하박리법 등의 내시경적 치료법으로 샘암종의 분화도가 좋고 침윤이 점막과 일부 점막하층에 국한된 제한된 조건하에서는 내시경적 완전 절제가 시도되고 있다. 본 연구에서는 조기위암 진단 후 수술적 치료를 택한 환자들의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 보고를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내시경 치료의 발전을 전망하고자 하였다.

(대상 및 방법) 2002년 7월부터 2005년 7월까지 36개월 동안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에서 조기위암 진단하에 수술을 시행 받은 168명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의 총 171개 샘암종 병변에 대하여 병리조직학적 특징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.

(결과) 환자들의 중앙 연령은 61세(31~82세), 남녀비는 1.8 : 1이었다. 대부분의 환자는 위아전절제술을 받았고 위전절제술을 받은 경우는 전 수술 예의 9.5% (16/168)이었다. 이밖에 췌기절제술(wedge resection) 및 기타 술식을 받은 경우가 4.2% (7/168)이었다. 하나의 절제된 위조직에서 두 개의 샘암종이 동시에 있었던 경우는 전 수술 예의 3.6% (6/168)이었으며 이 중 분화도가 다른 샘암종을 동시에 갖고 있었던 경우가 33% (2/6)이었다. 총 171개 병변 중에서 샘암종이 점막층에 국한된 경우는 58.5% (100/171)이었고 점막하층의 제1층까지 침윤한 경우는 12.3% (21/171)이었다. 본 연구에서 점막하층의 제1층은 점막근층(muscularis mucosa)하단부로부터 500 μm 이하 부위로 정의하였다. 168예의 전 수술 예에서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는 6.0% (10/168)이었고 이 중 침윤은 점막층이었으나 림프절 전이가 있었던 경우는 1.2% (2/168)이었다. 샘암종의 분화도는 총 171개 병변 중에서 고분화도 및 중분화도를 보인 예가 53.8% (92/171)이었고 미분화도를 보인 예는 36.8% (63/171)이었다. 샘암종의 분화도가 고분화도 및 중분화도이고 침윤 깊이가 점막하층 제1층이하에 국한되어 있으면서 림프절 전이가 없었던 경우로 내시경 치료의 적응증이 될 수 있었던 경우는 전 수술 예의 47.6% (80/168)이었다. 한편, 본 연구에는 일차 치료로서 내시경적 치료를 선택한 후에 불완전 절제가 의심되어 추가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한 17예가 포함되었는데 이 중 잔존 샘암종이 확인된 경우는 17.6% (3/17)이었다.

(결론) 본 연구 결과 향후 조기위암의 치료에 있어 내시경 치료의 비중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.